

2016년도 제3회 반부패·청렴추진위원회 회의록

□ 회의 개요

- 일 시: 2016.7.25.(월) 15:00~16:00
- 장 소: 9층 중회의실
- 참석자
 - 총 위 원 : 7명
 - 참석위원 : 5명
황지호(위원장), 손병호(위원), 류영수(위원),
이기종(단장代)(위원/간사), 박세인(위원/간사)
 - 불참위원 : 2명
임현(위원), 최문정(위원)
- 안 건: 반부패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1차 심사

□ 회의내용 및 결과

- 접수된 아이디어 6건 중 3건 채택
 - 위원들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어 아이디어 평가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4가지 평가기준을 중점으로 평가하였음
 - 각 분야에 해당하는 업무 담당자의 부분적 참여를 통해 내용의 부패 연관성, 제도화 가능성, 부패개선 효과성, 창의성 및 실행용이성이 있는지 실무적 차원에서 함께 검토 및 파악하였음
 - 우리 기관 특성에 맞는 아이디어인지를 파악하여 평가하였음

○ 아이디어별 위원회 의견 정리

번호	제목	의견
1	기관 반부패개선을 위한 직원간 청렴도 평가강화	(채택) • 현재 직원 인사고과 평가 기준 중 ‘협조/성실/도덕’의 항목이 한꺼번에 묶여 있으며 배점이 보직 유무에 따라 10-15점 사이를 차지하고 있으므로, 도덕부분을 ‘청렴도’ 항목으로 별도 개설하여 운영할시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•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항목의 배점보다 추가배점을 넣어 평가하면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됨
2	방만 경영 사전방지	• 전체적인 기관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기술한 것으로, 아이디어 공모전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 의견 제시로 판단됨 •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의 일환으로 이미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임. 교육비 지원, 의료비 과다지원, 경조금 지원, 과다한 특별휴가 등은 이미 규정상으로 명시되어 개선되었음

3	KISTEP 연구윤리규정 내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개선	(채택) - 제안된 의견처럼 현재 연구윤리규정 내 소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내용은 본조사위 의사결정 과정 중에 객관성 제고가 필요함 - 현재의 위원 구성상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될 때, 외부전문가의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의결이 가능하므로, 의사결정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최소 1인 이상의 외부전문가 참석이 필요함 - 예비조사위는 ‘4인이내’ 구성 가능의 항목을 ‘3인이상’ 으로 변경하여 위원장 단독 소집 및 의사결정이 불가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부패소지를 미연에 방지 가능
4	직원채용 투명성 제고	- 우리 기관은 현재 인적성 검사 전형만을 외부에 의탁하여 평가하는 중임. 연구기관의 특성상 인재 채용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서류 및 논술 심사를 외부업체에 일임하는 방식은 인력의 전문성 저하라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스러운 제안으로 판단됨 - 또한 업체에 일임하여 평가한다 하더라도 전문적 지식 등에 관하여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음 - 투명성의 부분에서는 유효하지만 실제 적용가능성이 낮음

5	여비규정중 식비지급 규정의 수정 제안	• 행정시스템 상에서의 변경 제안이나, 결과적으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간주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됨
6	납품된 물품검사 기준 세분화	(채택) • 관련 제안내용 중 일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방법이 있으나, 대부분의 방법과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• 채택된 아이디어를 근거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• 고가의 물품의 경우 샘플조사를 보다 엄격하게 시행하고 보다 강화된 물품관리가 필요하며, 이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

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참석위원 2인이 기명날인 함.

2016.7.25.

위 원 장 황 지 호 (인)

위 원 손 병 호 (인)

위 원 류 영 수 (인)